

지역 상장법인 시총 50조 시대 '활짝'

지난달 39개사 시총 50조3천335억
전월비 3.2% ↑ ...대한조선 상승 주도
코스피와 달리 지역 코스닥은 고전

국내 증시가 사상 최초로 코스피(KOSPI) 6,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상장법인들의 시가총액 역시 50조원 시대를 열었다.
반도체 수요 확대와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며 전체 증시가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지역 내에서는 종목별·시장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코스피 6,000시대...지역 시총 50조원 '안착'
10일 코스닥시장분부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026년 2월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역 상장법인 39개사의 2월말 기준 시가총액은 50조3천33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48조7천508억원) 대비 3.2%(1조5천833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전남 지역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인 '대한조선'이 주도했다.
대한조선의 시가총액은 한 달 사이 1조1천519억원이 급증하며 지역 전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가총액 증가를 면에서도 대한조선은 43.0%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유가증권시장 내 지역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금호타이어(2천758억원 ↑)와 한전KPS(2천700억원 ↑)가 시총 증가액 상위권에 이름



떨어진 원유값과 원·달러 환율...금융 보안 코스피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밀링룸 전광판에 서부텍사스원유(WTI),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을 울리며 지역 증시를 뒷받침했다.
◇코스닥은 '울상'...와토스코리아는 72% '깜짝 급등'
유가증권시장의 혼풍과 달리 지역 코스닥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광주·전남 코스닥 상장법인 23개사의 시가총액은 2조7천460억원으로 전월 대비 12.0%(3천740억원)나 감소했다.
전체 코스닥 시장이 4.0%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 코스닥 기업들의 소외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다만 개별 종목 중에서는 전남 소재 '와토스코리아'의 약진이 눈부셨다.
와토스코리아는 2월 한 달간 시가총액이 720% 급증하며 지역 상장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오일솔루션이 시총 372억원 증가(증가율 18.7%)를 기록하며 코스닥 시장의 체면을 세웠다.
◇개미들은 '관망'...거래대금 20% 넘게 빠져
증시 지수의 기록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역 투자자들의 매매 활동은 오히려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7조2천946억원으로, 전월(9조1천766억원) 대비 무려 20.5%(1조8천820억원)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이 15.8%, 코스닥시장이 30.2% 줄어들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탈이 가팔랐다.
이에 따라 전체 시장에서 광주·전남 투자자가 차지하는 거래대금 비중도 전월 0.8%에서 0.7%로 0.1%p 하락했다. /임채만기자

“광주FC 응원하면 금리 올라간다”

광주은행, 경기 성적·팬 참여 따라
우대금리 제공 적극 판매

광주은행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 프로축구단 광주FC와 연계한 스포츠 특화 금융상품 '광주FC적금'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FC적금'은 광주FC의 경기 성적과 팬 참여 활동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참여형 금융상품으로, 지역 스포츠와 금융을 연계해 팬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상품은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는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정액적립식은 최고 연 3.50%, 자유적립식은 최고 연 3.30%의 금리가 적용된다. (2026년3월10일 세전 기준)
우대금리는 ▲2026시즌 K리그1에서 광주FC의 최종 성적에 따라 최고 연 0.30%p ▲광주FC 홈구장 방문 인증 시 최고 연 0.40%p ▲광주FC 제휴 체크카드 10만원 이상 사용 시 연 0.20%p가

제공된다. 광주FC를 응원하는 팬들의 참여 활동을 금융 혜택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광주·전남 통합을 응원하는 취지를 반영해 '광주FC적금' 가입 고객이 '전남광주특별시 사랑통장'을 보유한 경우,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 연 0.20%p를 추가로 제공한다.
상품 가입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은 물론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채만기자

증시 변동성 최고...외국인 매수세 코스닥 관심을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V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3월4일~3월10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3.7% 하락, 코스닥은 1.4%가량 상승했다. 정부의 코스닥 부양정책에 발맞춰 주요 운용사들이 3월 10일과 17일 액티브 코스닥 ETF를 상장시키는데 이에 따라 수급적인 요인이 코스닥지수를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공포와 탐욕 양면적인 모습이 모두 가득한 모습인데, 미국의 이란 공습이 확정으로 번지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스라엘의 이란 유전시설 타격 등이 유가를 폭등시켰고 WTI 기준 120달러까지 급등했다.
수급동향을 보면 최근 매매는 단연 외국인들이 잘하고 있다.
2-3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29조원을 매도했는데 3월 4일 급락장 속에서 이후에 외국인들은 주시 현물물을 1시간 반 동안 2조7천억원가량 순매수했다.
그다음 날 증시 급반등이 나왔었고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 외국인들은 그간 순 매수했던 코스닥을 액티브 ETF 상장일(3월 10일) 순매도하고 있고 코스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다.
지수 ETF 매매하시거나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중단기 상대 강도는 외국인의 수급을 참고하는 게 좋을 듯하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역사상 최고치인 듯하다.
미국의 이란 타격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는데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가 전일대비 8% 이상 하락하면 2분간 모든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조치이다.
국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역사상 7번인데 3월 4일에 이어서 3월 9일 역사상 6,7번째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된 것이다.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낮게 봤었는데 시장은 장기화도 진지하게 걱정했었던 듯하다. 그 이유를 꼽자면, 첫 번째, 종교적 순교의 서사이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때도 전쟁 시작 2주 만에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이후 이슬람 반군의 등장

과 종파 내전을 저지하지 못했고 5년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종교적 신념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제거는 전쟁을 끝내는 요소가 아니라 시아파의 순교 서사의 완결으로 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종교적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지상군 투입에 대한 부담이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전략적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미사일을 통한 공격은 주요 시설 파괴 이상의 것을 달성하기 어렵고, 결국 저가 드론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한 이란의 저항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당초 핵 개발 제거가 목적으로 제시됐지만, 최근에는 정권교체 관여 의지와 함께 이란의 무조건 항복 요구가 제시됐다.
이란 권력의 중심이 보수파에 있기에 무조건 항복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출구전략의 부재로 해석된다. 미국이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장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던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10일까지의 상황은 트럼프가 출구 쿼트를 열어놓은 상황이고 이란도 미국이 공격을 멈추면 종전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며 급락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추후에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1.2월 국내 지수의 급등으로 인한 조정구간으로 생각하고 일장 기운 아래에서는 다시 주식을 모아가는 기세로 접근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는 전쟁 확전 이슈보다는 고유가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가고 있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바뀔 수 있어 보이고 흑역사 금리 인상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상사자본재, 에너지(정유), 건설, 증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는 지켜야 할 업종으로 보이고 바이오와 SW, 미디어 업종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보인다.
최근 증시를 보며 느낀 점은 수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받쳐주고 있고,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코스닥 시장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3월 10일 TIME코스닥액티브와 KoAα코스닥액티브 ETF가 신규 상장했고 추후 다른 운용사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도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패시브와는 다르게 운용의 폭이 넓은 점에서 지금까지의 무조건적인 지수 상위주 위주의 움직임과는 다른 개별 이슈가 더 부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상위업종 중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업종 순으로 관심이 간다.

